**혼다니 마을 터**

지금은 나무들만 우거진 조용한 장소로 남아 있는 혼다니(‘주요(혼)한 계곡(다니)’이라는 뜻)는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이와미 은광에서 가장 주요한 채굴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. 상당히 큰 규모의 마을이 계곡 일대에 펼쳐져 있었으며 은 가공장 역할을 했던 집들은 평탄한 계단식 지형 위에 지어져 있었습니다. 계곡 입구 가까이에는 이와미 은광에서 가장 거대한 채굴망이자 다수의 갱도와 수직갱으로 이루어진 오쿠보 갱도가 있습니다. 거기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쿠보 갱도에서 나온 지하수를 배출하기 위해 만든 총 길이 800m의 긴세이갱이 있습니다. 또한 은 광맥이 지표면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자리한 경우가 많았던 이 지역에는 광산 노동자들이 절벽을 직접 파낸 것으로 보이는 좁은 갱도와 유구가 산재해 있습니다. 현재 이러한 유구의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풀과 나무에 덮혀서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, 17세기 초기 이와미 은광의 은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킨 가마야 갱도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여러 유구가 다수 발굴되고 있습니다. 이곳에는 계단식 지형을 보강하기 위해 만든 돌담의 일부도 남아 있습니다.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지역에서 가장 풍부한 은 광맥 위에 만들어진 혼 갱도(‘주요(혼)한 갱도’라는 뜻)의 입구가 나타납니다. 이곳에서 센노산과 더불어 17세기의 또 다른 주요 마을이었던 이시가네 방향으로 올라가면 계곡의 폭이 점점 좁아집니다. 혼 갱도에서 이시가네로 가는 길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걷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시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